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아이의 피해를 알렸는데 역으로 소송까지.
반소 방어를 항소심에서도 지켰습니다.

반소 기각 유지

반소 방어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책임 유지 · 원장 개인 책임은 제외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해율

피고(반소원고), 항: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피해를 둘러싸고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반대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했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심 이후에는 상대방들의 항소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가족에게는 아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과 자신들을 상대로 한 역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에서는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책임,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책임, 피해 가족을 상대로 한 반소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에 상대방들의 실명이나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 부모가 그러한 행위를 공모하거나 교사·방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과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구별되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책임 유지 · 원장 개인 책임은 제외

말과 글이 소송이 된 순간, 당신의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의 피해를 다투던 가족에게 돌아온 반소. 해울은 항소심에서도 반소 기각을 지켰습니다.

- 인터넷에 퍼진 글을 자신이 배후에서 시켰다고 주장한다면?
- 가해 아동 부모와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 1심에서 막은 반소가 상대방 항소로 다시 문제 됐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울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 부모에 관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상대방들의 반소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기준을 적용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임 주체별로 결과가 달랐던 사건인 만큼, 유지된 성과와 변경된 부분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항소심에서도 상대방들의 반소 기각이 유지되었고,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책임 역시 유지되었습니다. 원장 개인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되어 사건 전체가 모두 승소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피해 배상을 청구한 가족에게 돌아온 역청구를 항소심에서도 막았다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 비난과 손해배상 분쟁이 함께 벌어졌을 때 행위자와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진 결과입니다.

아이의 피해를 다투던 가족에게 돌아온 반소. 해울은 항소심에서도 반소 기각을 지켰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아이의 피해를 다투던 가족에게 돌아온 반소. 해울은 항소심에서도 반소 기각을 지켰습니다.

- 아이의 피해 배상과 부모에 대한 역청구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면?
- 온라인 게시 사실만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 자녀의 피해를 알렸더니 오히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